

광양시, 수돗물 원수관리 강화 협조체계 구축

한국수자원공사와 상수원수 수질데이터 등 공유로 안정적 정수장 운영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위해 원수부터 배수까지 철저 관리”

광양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어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마동정수장과 용강정수장에서 각각 정수처리 후 중마동 등 동부지역과 광양읍 등 서부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수어댐 원수는 고농도의 망간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어 정수장에서는 상시 수질 모니터링에 긴장을 늦출 수 없으며, 특히, 동절기가 되면 망간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어 유입되는 망간 농도에 맞춰 정수처리 방법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한다. 시는 최근 용강정수장에 유입되는 원수에서 평상시보다 수배 이상 고농도의 탁도가 유입되고 망간 또한 높게 나타나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장기간 정지됐던 옥

곡 가압장의 착수정 및 관련 펌프 가동으로 고농도의 망간이 유입됐다는 것.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동절기 착수정을 경유하지 않는 펌프의 가동을 일반화하고, 불가피하게 착수정 경우 펌프를 가동할 때에는 사전에 광양시 정수장 관계자와 공유하여 정수처리에 차질 없도록 했다.

김세화 상수도과장은 “시에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원수부터 정수, 배수까지 철저히 수질 관리를 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어댐 원수 수질 상태를 월 2회 이상 측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타 특이한 수질 변동 시 상시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여수시 화정면 마을버스 ‘운행개시’

국도77호선 화양~적금 연륙·연도교 개통에 따라 육지가 된 조발, 둔병, 낭도, 적금 등 도서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올해부터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여수시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화정면 마을버스를 지난 1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 노선은 고흡군 우두에서 출발하여 적금마을, 여산마을, 규포마을, 둔병마을, 조발마을, 장등마을, 세포를 경유하여 나진이 종점이며, 1일 왕복 8회 순환 운행한다.

화양~적금 연도교 개통 조발·둔병·낭도 등 지역 1일 왕복 8회 순환 운행 초등생 100원·무료환승도

화양면 나진 출발 첫차는 06:10, 막차는 18:00이며, 고흡군 우두 출발 첫차는 07:30, 막차는 19:20이다. 마을버스 요금은 시내버스와 동일하고, 교통카드 단말기 탑재로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 초등학생 100원 버스, 무료 환승도 지원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운행으로 도서지역 마을 안까지 버스가 들어갈 수 있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을버스 도입으로 고흡군 우두까지 1일 4회 임시 연장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26-1번, 29번은 내년부터 연장운행을 종료하고 기존대로 화양면 구간만 운행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순천현대여성아동병원, 4회 연속 전문병원 지정

101곳 중 전국 유일하게 주산기전문병원 획득



순천현대여성아동병원(병원장 윤정배)이 4회 연속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제4기(2021년~2023년)에 지정된 전문병원 101곳 중 전국 유일하게 주산기전문병원을 획득했다. 현대여성아동병원은 전문병원제도가 도입된 1기(2011년~2014년)부터, 2기(2015년~2017년), 3기(2018

년~2020년) 이번 4기까지 엄격한 심사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4회 연속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주산기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심의 등을 거쳐 총 101개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선정했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병원의 전문화, 특성화를 통한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전문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 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12가지 질환과 7가지 진료과목 등 총19개 분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환자구성비율과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전문병원으로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미치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된다.

순천현대여성아동병원 윤정배 병원장은 “인증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안전하고 전문적인 병원으로서 의료진과 환자들은 물론 가족과 보호자들의 만족도까지 고려해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양해공 김빈길 장군 동상 고흡 순천시 낙안에 건립

620여 년만의 고흡 귀환...낙안읍성서 제막식 개최

순천시는 최근 낙안읍성의 최초 축성자인 양해공 김빈길 장군 동상 건립 제막식을 가졌다.

이번 제막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해 낙안읍성 및 낙안면 주민대표, 김빈길 장군 후손 문중 관계자 등 제한된 소수 인원만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김빈길 장군은 낙안출신으로서 순천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낙안읍성을 최초로 축성하여 왜구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영웅이다. 또 30여 년간 수군장수로 봉직하면서 왜구를 소탕하고 민생을 안정시켜 '항상 물 위에서 나라의 장성(長城)이 되어 왜구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음 정도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였다.

그러나 김빈길 장군은 오랫동안 일반 시민들에게 그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잊혀진 영웅이었다. 순천시는 잊혀진 김빈길 장군의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9년 순천 역사인물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현창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각계각

층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최종적으로 김빈길 장군 동상을 건립하기로 시민 의견이 모아졌다.

지난해 5월, 주민대표 및 예술인 등이 참여한 '김빈길 장군 현창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상건립을 추진하였다.

이번 제막식을 통해 공개된 김빈길 장군 동상의 작품명은 '장군의 귀환 - 다시 이곳에 선 영웅'이다. 생전에 고흡을 떠났던 장군이 620여년 만에 고흡 낙안에 귀환하여 다시 서고자 했던 간절한 염원과 위풍당당한 장군의 위엄을 담은 작품으로 낙안읍성 축성과 왜구 토벌전을 지휘하는 김빈길 장군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순천시 관계자는 “동상 제막식을 시작으로 낙안읍성과 함께 김빈길 장군이 순천을 대표하는 역사인물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순천의 역사인물을 발굴하고 널리 현창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고흥군, 주요사업 심사 및 평가로 47억 원 예산절감

고흥군은 2020년 주요사업 1,016건에 대한 사업발주 및 설계변경 전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특정감사 등 사전 심사를 통해 46억 7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562건의 원가산정 등을 검토, 45억 1천만원의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일상감사는 408건의 사

업추진 등을 검토 5천만원의 절감과 부실요인을 막으며, 특정감사는 46건의 설계변경과 예비준공검사 임의화를 통해 1억 1천만 원의 예산절감과 함께 견실시공에 기여했다.

지난 11월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무자 원가계산방법 교육과 업무 이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주요시책

10건에 대하여 평가반을 구성 토론을 통한 확인평가 실시로 업무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간설공사 부실시공예 방 업무편람을 제작 배부하고 각종사업 중간단위 점검과 함께 부실시공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대형시설공사 13건에 대한 합동점검으로 품질관리에 힘썼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일이 행복한 광산
매력, 활력, 물결

